



외환시장 관련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

- 주요 수출기업의 외환거래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-

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.26(목) 16:00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현대·기아차, HD한국조선해양, 삼성중공업, 한화오션 등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외환시장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, 외환수급 개선 등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<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 개요 >

- 일시·장소 : '26.3.26(목) 16:00~17:00, 정부서울청사 광화문 홀
- 참석자 : (재경부) 2차관, 국제금융국장 등
(수출기업)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현대·기아차, HD한국조선해양, 삼성중공업, 한화오션

허 차관은 최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원화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, 주요 수출기업이 국가 경제 및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, 참석 기업들에 대해 일관된 환리스크 관리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.

아울러, 허 차관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*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, 동 세제 혜택이 해외 자금의 국내 유입과 국내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, 기업들의 외환거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.

* 국내시장복귀계좌(RIA) 및 개인용 환해지상품에 대한 과세특례,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상향(95%→100%)

참석 기업들은 해외자회사가 국내 본사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율이 100%로 확대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인세 절감 효과를 활용하여 배당금 국내 유입 규모 및 시기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고, 글로벌 요인에 기인한 고환율이 결국 기업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인식하에 정부의 외환수급 안정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.

재정경제부 <총괄>	국제 금융국 외환분석과	책임자	과 장 손선영 (044-215-7680)
		담당자	사무관 장준영 (jy4434@korea.kr)
재정경제부	국제 금융국 외화자금과	책임자	과 장 도종록 (044-215-47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용준 (kimyj1011@korea.kr)

